

# 통조림 輸出展望과 問題點

周 永 錫

(時事通信 社會部 次長)

國內 통조림 業界는 지난 해 8千 85萬 8千 달러의 輸出實績을 올려 全體年間目標 5千 5百 80萬달러를 67%나 超過 達成한 史上初有의 記錄을 세운 餘勢를 몰아 올해도 輸出目標를 크게 늘릴 것을 集中檢討해 主市場인 歐美 各國의 景氣下向과 自國 生産業界保護政策에도 不拘 지난해 當初 計劃線인 5千 5百 80萬달러에서 40%以上 增加시킨 9千6百萬 달러의 目標를 策定했다.

政府의 輸出 目標가 어느 規模로 確定되든 간에 意慾인 新製品의 開發등으로 輸出을 極大化하기 위해 크게 腐心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같은 實情에 비추어 올해엔 輸出市場의 消費性向이 伸張되지 못하고 停滯狀態에 있는 양송이 통조림 보다 밀감등의 保稅加工輸出 및 사과·도마도 등 주스 넥타類의 中東輸出이 本格化 돼 기타 農産物의 輸出이 크게 伸張勢를 보일 것으로 豫想되고 있으며 알라스카産 새우·게·청어 등 原資材輸入이 活潑해져 同 水産物 통조림의 大量加工輸出이 期待할 만한 것이고 참치의 國內輸入 加工輸出의 길도 점차 成熟해 가고 있어 全般的으로 水産통조림의 輸出이 農産통조림 보다 오히려 刮目하게 伸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業界서는 農水産物 통조림의 輸出市場이 점차 伸張彈力을 잃고 있어 輸出展望이 暗轉하고 있는 實情을 들어 ① 輸出用 原料인 農水産物 原資材의 輸入에 따른 資金 稅制上の 支援 ② 新規品目 및 新規市場開拓業體에 대한 支援북 牛肉등의 링크 輸入許容 ③ 國內 原料收買資金의 支援擴大 및 收買圈의 效率의 인 設定 ④ 輸出不振品目에 대한 收買 備蓄制度의 新設 ⑤ 空罐·綿實油등의 副資材備蓄制度의 實施 ⑥ 生産·收率向上 品質向上 國際 競爭力強化를 위한 老朽施設代替 改補修資金

77年度 輸出 실적

|       | 77年度計劃(A) | 실적(B)  | 比率   | 76年度   |       |
|-------|-----------|--------|------|--------|-------|
|       |           |        |      | 実績(C)  | (B/C) |
| 합계    | 55,800    | 85,858 | 154% | 51,515 | 167%  |
| 양송이   | 36,800    | 53,562 | 146  | 37,476 | 143   |
| 기타농산물 | 2,800     | 2,403  | 86   | 1,805  | 133   |
| 수산물   | 1,900     | 32,296 | 170  | 14,039 | 230   |
| 굴     | 11,000    | 19,381 | 176  | 6,910  | 280   |
| 고등어   | 3,000     | 4,578  | 152  | 2,195  | 209   |
| 종합    | 2,000     | 2,692  | 135  | 1,897  | 142   |
| 기타    | 3,000     | 5,645  | 188  | 3,037  | 186   |

의 集中 放出등을 強力히 要望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百億달러 高地를 占領한데 이어 올해엔 1百 25億달러의 수출목표를 세우고 있는 政府가 實質稼得額이 一般工産品보다 10배나 높고 農漁民所得增大効果에 直結돼 있

는 農水産 통조림의 수출기반 조성강화를 위해 어느 만큼 破格的인 綜合支援施策을 베풀 것인지에 수출 伸張與否의 열쇠가 쥐어져 있어 全業界의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토막상식▷



안경은 1270년경 「이탈리아」인 「살비노·다르마티」에 의해 「베니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졌다.

그러나 어느때가부터 광학제품은 독일제품이 세계를 제압하기 시작했다.

안경알을 비롯, 쌍안경 「오제라·글라스」, 「카베라렌즈」등 과학제품을 만드는 세계적 메이커는 「자이스」(Zeis)社다.

「자이스」社의 각종 「렌즈」가 세계일류로 꼽히고 있지만 쌍안경만은 역시 독일의 라이츠(Leitz)에 비해 뒤떨어진다.

「자이스」안경알은 정교하며 티가 거의 없는것이 특징이다. 알속에 「자이스」상표가 새겨져 있어 위조를 못한다.

「마비츠」(Marwits)社는 안경테를 만드는 회

사인대 「자이스」의 子會社다. 따라서 「마비츠」안경에는 「자이스」안경알을 끼워준다. 광고를 할때도 함께 하는 것이 특징이다.

「로덴슈토크」(Rodenstock)도 안경 「메이커」로서 빠지지 않는 회사다. 「로덴슈토크」는 「쾨헬」에 공장이 있지만 그 제품은 쏠독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나가고 있다.

「마비츠」안경테가 「모넨뎀버」만 붙이는데 비해 「로덴슈토크」는 「리차드」 「아놀드」 「토로」 「베르트람」 「로카르노」 「베르거나」등 모양에 따라 고유한 이름을 붙이고 있다.

골격에 따른 「디자인」도 시도하고 있는데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디자인」도 많다. 특히 「아놀드」. 4062나 「아놀드」 4162는 동양인에게 어울려 안경테가 흘러내리지 않는다. 「선·글라스」의 경우 일류품의 품목이 달라진다. 「크리스찬·디오르」 「이브·상·로망」등 파리의 「패션·메이커」에서 본격적으로 「선·글라스」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다.